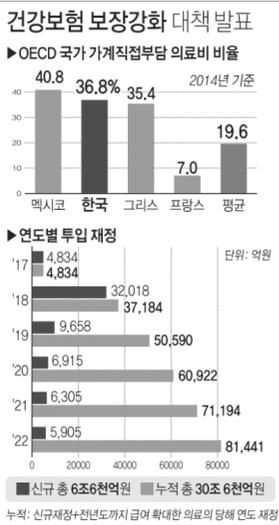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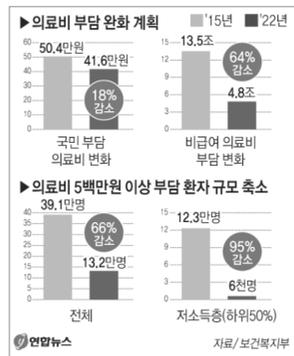
# 초음파·MRI·2인실 보험급여... '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

##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



3800개 비급여 항목 단계별 적용... 2022년까지 31조 투입

의료비 부담 64% 감소 목표...재원 마련 공방 뜨거울 듯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 수술, 2인실 등 기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이다. 그러나 혜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많아 시행과정에서 재원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

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800여개다.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가항목은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할 계획이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하기로 했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4인실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필요하면(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를 돌보느라 등골이 휘는 가족의

간병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은 전국 353개 의료기관에 2만 3460병상에 불과하다.

기존 비급여를 해소해나가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신포괄수가제'를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2022년까지 민간 의료기관 포함해 20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는 진료비 정액제로 의료기관별 비급여 관리에 효과적이다.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

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2004년 도입했다.

취약계층별로는 노인 치매 검사를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현재 20조원 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총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보험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결국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책을 실행하면 비급여항목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뉴스

## 북-미 '일촉즉발'...한반도 '위기일발'

北, 광 미사일 발사 위협

美, 군사적 대응 가능성

북한이 9일 광 미군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포위사격' 위협을 하며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를 또 한걸음 베풀어 놓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광 주변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사실상 전쟁 도발 행위로 보고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 전략군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광을 '대조선 침략의 전초기지·발진기지'로 지목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광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층히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은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장거리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무기의 발진기지로, 북한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북한이 언급한 포위사격은 광을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광을 포위하듯 주변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려 고강도 위협을 하는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포위'라는 표현은 쓴 만큼,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광 주변 해역에 떨어뜨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광 포위사격을 통해 화성-12형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왼부분 2대)가 7일(현지시간) 광의 앤더스 공군기지에서 발진, 일본 규슈 인근과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전역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연말뉴스

의 정밀도를 과시하고 광 미군기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려고 할 수 있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분류되는 화성-12형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광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이 지난 5월 14일 감행한 시험발사에서 화성-12형은 고각으로 발사돼 최고고도 2100여km, 비행거리 7800km를 기

록했다. 정상 각도인 30~45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4500~5000km에 달할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광은 북한이 당시 화성-12형을 쏜 평안북도 구성과 약 3500km 떨어져 있어 화성-12형의 사정권에 충분히 들어간다.

그러나 화성-12형의 정밀도와 안정성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북한이 올해 4월 공중폭발 등으로 잇달아

실패한 3차례의 시험발사 가운데 일부도 화성-12형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대형 도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잘못된 판단을 토대로 무모한 '불장난'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견줄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연말뉴스

## 설 자리 좁은 한국

정부, 북 추가 도발 동향 탐지 부심 "군 만반의 준비태세"

미국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고 북한이 광 포위사격 검토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인 상황이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9일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 근거지인 광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포위사격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 탐지에 부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당국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북한의 광 포위사격 작전 검토 같은) 그런 언급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북미 간 대립구도의 악화가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관계 복원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로 미국에서 '선제타격론'이나 '예방전쟁'이 거론되는 빈도가 늘어났지만, 일단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공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북한, 광 포위사격 위협



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에 제안한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은 인도적 조치이자 긴장 완화 조치"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남북의 회담 제의에 북측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연말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2017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 9월 7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 모집기간 : 2017년 8월 2일(수) ~ 2017년 9월 7일(목)  
· 교육기간 : 2017년 9월 7일(목) ~ 2017년 12월 14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한학기) 20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2학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7년 8월 1일(화) ~ 2017년 8월 25일(금)  
· 교육기간 : 2017년 9월 5일(화) ~ 2017년 12월 22일(금)  
매주 화요일 야간 19:00 ~ 21:00

· 수 강 료 : (한학기) 20만원(예금주 : 순천대평생교육원) 농협 643-01-007060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ilseong.suncheon.ac.kr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 061)750-5076~8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